κόκκος

200호

코코스는 '한 알의 밀'을 의미합니다

10 월 30 일 천마홀에서 개최된 가족구원 총장 초청리셉션 행사를 마치고
강우정 총장과 3 부장 및 교목실 관계자가 포토존에서 함께 하였다. (관련기사 5 면)

발행인 강우정
편집주간 이강동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02-950-5401
www.bible.ac.kr

2018 NOV
11
VOL. 200

졸업이수학점 130 학점으로 하향 검토

혁신사업단 , 학우들의 다양한 진로 경험 위해

우리 대학의 대학혁신사업단 (단장 김은호 부총장) 은 현행 140 학점인 졸업이수학점을 2019 학년도 입학생부터 130 학점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 월 24 일 갈멜관 브니엘홀에서 열린 2019 년 대학혁신사업 [안] 공청회에서 발표되었다 .

이날 혁신사업 [안] 의 제 2 영역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윤경 책임연구원 (전공교육부장) 은 우리대학의 교육 · 학습체제는 밀알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는 교육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는 학업의 기본인 졸업이수학점을 정해야 하며 이 작업은 다른 모든 계획에 앞서 학교가 우선적으로 확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따라서 1 차년도 (2019.3–2020.2) 추진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졸업학점 변경과 이에 따른 규정 변경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졸업이수학점 하향화는 우리나라 대학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 혁신단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 내 65 개 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을 조사하였다 . 그 결과 서울여자대학 등 37 개 대학이 130 학점을 , 명지대와 숙명여대 등 12 개교는 130 점 이하로 확인되었다 . 광운대학 등 11 개교가 138~132 점을 , 나머지 5 개 대학만이 140 학점제를 유지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이수학점 하향 조정에 대해 , 자율적인 진로 선택에 따른 다양한 전문성을 비교과와 선택실습을 통해 사전 체험토록 하여서 진로의 폭을 확대해 주려는 뜻을 담고 있다 .

또 하향 조정이 적용되면 편입생 입학기준까지도 함께 낮추어져 우리대학 편입학의 문도 넓혀지는 효과로 이어진다 . 이 문제에 대해 총학도 총학 – 총장간담회에서 130 학점을 요구한 바 있다 . (7 면 참조)

한편 졸업이수학점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필수 학점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도 풀어가야 한다 .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위는 기초교육원과 협의하고 있는데 영어 필수인 12 학점을 6 학점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참고로 우리 대학의 졸업학점 대비 영어필수학점 비율 8.6% 는 수도권 4 년제 대학들과 비교해 가장 높다 .

미니설교

눈을 뜬 바디매오

누가복음 10:46–52

김승호 교수 (신학)

청각 , 후각 , 미각 , 촉각 , 시각 모두 중요하지만 볼 수없는 것은 인생을 가장 불편하게 한다 . 여리고의 소경인 거지 바디매오는 인생의 난제를 다섯 단계로 해결 받았다 .

첫째 , 자신에게 문제 있음을 인정했다 (46 절). 둘째 ,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믿음) 을 가졌다 (47 절). 셋째 ,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다 (49 절). 바디매오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 고 말씀하셨다 . 넷째 , 바디매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50 절). 다섯째 , 바디매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52 절). 바디매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치실 것을 믿었다 .

그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 그의 난제는 해결되었다 .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느니라 ". 바디매오는 한 때 길 가에서 구걸하던 옛 생활로 ,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

우리도 길 가 , 길바닥에서 사람들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옛 생활에서 떠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좇는 사람이 되자 !

2018 크리스천 데이 , 하나총학 주관

'하나님의 새사람으로 회복해 가야 ...'

기념예배 , 콘서트 , 플리마켓 펼쳐

▲ 4 인조 그룹 울랄라 세션의 열창

▲ 삽화를 그리는 보구미 작가

▲ 드로잉 작품 전시

종교개혁기념예배가 25 일 오전 11 시 30 분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 김은호 부총장이 '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마 9:14~17) 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김은호 부총장은 " 새로운 개혁은 낡은 사상이 아닌 새 마음을 통해 새로운 의지를 갖는 생명력을 필요로 한다 . 루터는 어떻게 의로울까를 고민하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다 . 우리가 일상에서 고통과 번민에 처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배로 회복되어지길 소망해야 한다 . 그러나 나의 의지와 주장은 안 된다 . 주님 음성에 사로 잡혀 교감하며 예배자로 거듭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새사람으로 회복해 가는 역전의 삶을 살아 달라 " 고 말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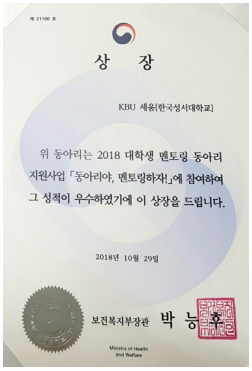
진예은 총학회장이 종교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온전한 신앙인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 헌신과 은혜로 주의 모습을 전하는 거룩한 학우가 되자며 기도했다 . 황재민 (컴소 1) 학우는 고교 때 자신에게 하나님은 ' 사랑 ' 으로 다가오셨다 .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배우고 섬기겠다며 PPT 를 활용해 간증했다 .

이번 크리스천 데이 주제는 ' 편지 하나님이 너에게 ' 이며 하나총학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 로고스홀에서 전도반 콘테스트가 성황을 보여줬고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의 토크 콘서트도 반응이 컸다 . 방황과 갈등 , 현실적 문제 등을 질문형식으로 나눠 공감을 불러왔다 . 게스트 공연은 수퍼스타 K3 에서 우승을 거머쥔 인기 4 인조 그룹 울랄라 세션이 무대에 올랐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 서쪽하늘 등 4 곡을 열창해 주었고 박수와 함성이 홀을 가득 메울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불러왔다 .

총학은 이밖에도 편지부스 운용 및 영화할인권 증정 , 포토 존 설치 등으로 추억과 감성을 경험토록 배려하였다 . 낮은마당의 플리마켓에서는 간단한 먹거리와 삽화그림 , 동아리 소개 및 화장품 코너 설치 등도 운용했다 . 교학팀 유미나 팀장과 이소연 직원이 장학금에 관한 사항 , 전과 , 복수전공 및 학사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을 상담해 줘 호응을 얻었다 .

'KBU 세움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사회복지학과 주축 , 지역사회에 헌신 보여줘



상 장

KBU 세움[한국성서대학교]

위 동아리는 2018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 「동아리야, 멘토링하자!」에 참여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사회복지학과 학우들 주축의 'KBU 세움 ' 동아리가 29 일 진행된 최종사업보고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단 2 개 동아리에게만 수여되는 이번 보고회에서 높은 실적과 목적성 부분의 탁월함이 인정돼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 시상식에는 강하늘 (4) 대표와 송승현 (3) 부회장이 참여했다 .

'KBU 세움 ' 동아리는 2013 년 개설 , 5 개 지역사회기관과 연계된 멘토링 사업에 힘써왔으며 나와 타인 (클라이언트) 을 함께 세워 지역사회를 일으키겠다는 세움 인재상이 담겨진 이름이다 . 20 명의 학우가 창의적인 멘토링 집단활동을 펼치며 활약하고 있다 . 지난 6 월에는 ' 동아리야 멘토링하자 ' 로 공모에 당선돼 100 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등 활발한 사업으로 한국성서대학의 선한 이미지를 확산시켜 가는 동아리이다 .

안정선 교수는 " 지역사회를 위해 자율적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동아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각종 행사 스케치

성서학과 _ 신학인의 밤

▲ 교수와 동문들이 한 테이블에서 대화중인 모습

김성봉 교수는 " 이 시대는 영적 기갈을 맞고 있다 . 주의 부르심으로 자리한 공동체가 말씀에 충실하고 헌신과 실천을 다하자 " 고 말씀했다 . 식탁 교제에서 선 · 후배가 서로를 챙기며 비전과 소명에 대해 이야기 꽃을 피워갔다 . 1 학년 후배가 특송으로 환영하였고 ' 선배와 후배 하나가 되다 ' 라는 질문형식의 토크쇼가 관심을 높였다 . 선 · 후배가 질문을 나누며 이해와 사랑의 공동체 됨을 보여 주었다 . 전소희 (3) 학회장의 인도로 신학인의 사명 감당에 충성하자며 통성 기도를 가졌는데 60 여명의 동문과 재학생 등 160 명이 참석했다 .

영보학과 _ 씨앗의 꿈 : 음악과 함께 하는 힐링 인문학

▲ 민경찬 목사가 자작곡한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 .

민경찬 (세필교회) 목사는 아이들의 교육을 준비할 때 중요한 점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다 . 이를 위해 먼저 내면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수련해 가야 한며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전하고 음악 효과에 대해서도 공감을 높여 주었다 . 요즘 교육이 성장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아쉽다 . 그는 자신에게 숨겨진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를 위해 모두가 주체자라는 인식을 갖고 교육준비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간호학과 _ ' 기독 간호사의 소명 '

▲ 강의하고 있는 박승미 교수

박승미 교수 (호서대 간호학 교수 , 생명보건대학 학장) 가 소명 (calling) 에는 숭고한 열정 (enthusiasm) 이 존재한다 . 그 속에 은사 (talent) 및 거룩한 분노가 더해질 때 발견되며 스스로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명은 주를 경외하는 숭고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부족하지만 주어진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룩한 생각을 요청했다 . 현재 우리에게는 주의 사랑과 복음을 심는 예비간호사의 소명이 주어졌다 . 열심을 다해 소명에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제 5 회 총장배 성경암송대회’

최승민 (4) 학우 1 위 , 196 명 열띤 경합

' 제 5 회 총장배 성경암송대회 ' 가 종교개혁기념일인 25 일 오전 일립관 101 호에서 진행됐다 . 재학생 196 명이 참여해 신명기 30 장 , 고린도전서 13 장 등 100 구절을 놓고 경합을 벌였다 .

영예의 최우수에 최승민 (4) 학우가 , 2 위와 3 위에는 박미혜 (3) 학우 , 조진흥 (4) 학우가 각각 차지했다 .

최우수의 최승민 학우는 " 평소 성경암송을 일상화해오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어왔다 .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받게 됐다며 말씀을 더 사모하고 신앙인의 본을 다해 갈 것 " 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

암송대회는 객관식 40 문제의 지필시험과 본선 골든벨 방식의 결선자를 거쳐 주관식으로 주어진 5 개 구절가운데 4 개를 골라 최종 수장자를 결정지었다 .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에 30 만 마일리지와 2 위에 20 만 , 3 위 10 만 마일리지가 수여되었다 .

2018 가족구원 학부모 초청 리셉션

임현필 목사, 복음 심겨진 학우들 큰 자랑!

▲ 어린이전도협회 동아리 소속 학우들의 상황극 장면

총장 초청 '2018 가족구원 학부모 초청 리셉션'이 30일 저녁 7시 천마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리셉션은 가족 구원을 애타게 염원하는 학우들의 기도를 학교 차원에서 돕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만찬과 특송 및 복음제시로 이어졌다.

임현필(교목실) 목사는 복음제시의 시간에 "우리대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학우들이 큰 자랑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학우들의 내면은 충만하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마음에 변화를 받아 은혜와 감사로 넘쳐난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부모와 가족이 하나님과 만나줄 것을 애타게 갈망한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참석한 가족들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받아 드리고 은혜와 사랑의 가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학우들 역할이 컸다. 밀알사회봉사단원들이 그간의 활약상과 마음을 울려줄 합창곡 '아름다운 나라'를 불러 가족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였으며, 수화 동아리인 말그리기 팀은 '그가 내 안에'곡을 수화로 표현, 주님의 임재가 이뤄지길 노래하였다. 이어서 어린이전도협회 동아리 회원들이 구원에 대한 스토리를 촌극으로 재현하였고 여기에 퀴즈까지 더해 가족모두에게 웃음과 화합을 안겼다.

부모님과 남동생을 초청한 선지희(성서 4) 학우는 "전체 분위기가 좋았다. 가족모두 거부감 없이 긍정의 시선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학교의 배려와 수고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리셉션에는 6가정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 19명이 참석했다.

전체를 기획한 임현필 목사는 학우들이 비중이 많아져 전체 분위기와 전달력 자체가 상승했다며 복음의 씨앗이 잘 발아(發芽)될 계기였다고 평하였다.

우리대학 '도시계획시설 변경' 노원구청 통과

"하나님의 절대적 개입으로" 정휘진 법인국장

▲ 당현천 건너편 주공아파트에서 바라본 학교 건물 전경

우리대학 내 밀알관, 일립관, 복음관, 모리아관의 교사(校舍) 건축물이 15일 노원구청의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기본 계획 변경 심의과정을 최종 통과 하였다.

학교는 지난 2004년 밀알관 신축 및 일립관 증축 등 교사 전체를 마스터플랜을 세워 작업해 왔다. 그 과정에서 당초 철거하기로 계획된 모리아관은 강의실 부족과 맞물려 실행자체가 어렵게 됐다. 결국 승인규정 불이행이 되면서 준공 불허로 이어졌다. 현재까지 모리아관을 임시사용으로 연장시켜 왔는데 더 이상 연장도 곤란하다는 구청의 연락을 받은 상태였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9월 서울시의 도시계획세부시설 승인과 노원구청의 계획변경까지 이끌어내며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은 밀알관 등 4개 건축물의 정식준공을 확인한다는 절차이며 향후 정식 등기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말한다.

승인전반을 총괄해 온 정휘진 법인국장은 "우리대학 전체 건물의 양성화 과정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으로 가능했다"며 영광을 돌렸다.

총학 – 엘리베이터 교체 , 졸업이수학점 , 방학과제 등 축소 요구
학교 – 학우들 요구에 적극 부응 약속 , 소통에도 더욱 노력 다짐

2018 학년도 2 차 총장 – 총학 간담회

2018 총장 – 총학 간담회가 11 월 2 일 오후 6 시 복음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총학은 지난번 5 월 1 차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의 후속조치를 물었고 이번 총장 간담회를 앞두고 학우들이 제기해 온 새로운 안건들을 질의 하였다. 총장 및 관련 보직자들은 각 문제 마다 학교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였다.

총학의 질의는 공간문제, 시설문제, 학과목에 관한 문제를 정리해 질의했다. 다음은 질의한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며 각 문제에 대한 학교의 답변을 기록한 것이다.

▲ 복음관을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

▲ 총학 : (공간) 지난 5 월 간담회에서 여학생휴게실 내에 장애여학우가 필요로 하는 가구를 비치해 줄 것과 남자학우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학교 측은 남학생 휴게실을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 것도 실현 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어려운 사정은 알겠는데 최소한 진행 상황만이라도 알려 줄 수 있지 않았나 ? 소통의 부재를 느낀다.

– 총장 : 우선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알려 주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남학생 휴게실만을 위한 독립적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같이 쓰는 공간이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장애 여학우에게 필요한 가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도 대단히 죄송하다. 필요한 가구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 주면 갖추도록 하겠다.

▲ 총학 : (시설) 복음관, 갈멜관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으로 교체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왔다. 학교 측도 공감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소식이 없다. 이번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엘리베이터 교체가 개선계획에 포함 되어 있는가 ?

– 답변 : 자율개선대학의 개선 계획에 엘리베이터 사업 자체를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엘리베이터 교체는 꼭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작 되면 (19 년 3 월 예정) 일반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며 가능하다고 본다.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에는 총학도 같이 추진하였으면 한다. 엘리베이터가 가장 필요한 동료 장애학우를 위한 다는 뜻에서 모든 학우의 동참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 총학 : (시설) 생활관의 세면대 거울이 낡아 뿌옇게 되었고 로비에 있는 소파도 낡아서 앉기 조차 거북하다. 모리아관 계단참에 있는 소파도 상태가 좋지 않다. 도서관 3 층과 모리아관 열람실의 1 인용 소파도 상태가 심각하다. 교체해 달라.

– 답변 : 적절한 지적이다.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겠다. 생활관은 지난 2 년 동안 메트레스 교체를 비롯하여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 및 건조기 등 꾸준한 개선이 있었다.

▲ 총학 : (시설) 학회실과 동아리실은 난방이 안 되어 개인 온풍기를 가져와 쓰는 형편이다. 또 수납장을 비롯 사무용 가구도 부족하다. 강의실 빔 프로젝터, 컴퓨터가 가끔 말썽인데 답변을 듣고 싶다.

– 답변 : 총학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학회실과 동아리실은 사용자들의 정리 정돈이 더 시급해 보인다. 스탠드형 난방기를 고려하겠다. 강의실 전자기기에 대해 수업지원센터로 들어온 불만 신고가 거의 없었는데 지적하니 다시 점검토록 하겠다.

▲ 총학 간담회를 끝마친 참석자들이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총학 : (직원) 생활관에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 답변 : 생활관의 인력이나 기타 시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활관의 몫이다. 생활관 입주비는 1 학기 당 45 만원이고 학교는 최저 금액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전담인력의 인건비도 생활관의 몫이다.

– 총장 : 지난 학기 까지 전문인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가?

– 답변 : 생활관의 요청에 따라 전담인력을 줄이고 그 대신 간사, 총무의 대우를 개선하였다. 다시 전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 대우 조정이 필요하며 생활관 관장과 협의하여 풀어 가야 할 것이다.

▲ 총학 : (교육) 일부이지만 강의계획서 공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학과제에서 독후감, 묵상지를 없애고 교회출석확인서 하나로 줄여 줄 수는 없는가?

– 답변 : 한 학기에 약 200 개 과목이 개설 되는데 이번 학기 11 개 강의계획서가 제때에 발표 되지 못했다. 주로 강사 섭외가 이유였다.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총장 : '대학에 무슨 방학과제가 있나?' 라는 이야기는 우리 대학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 우리의 방학과제란 성경을 매일 읽는 일과 책 한권 읽고 독후감 쓰는 일,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여 확인서 받는 것이다. 과제라기보다 성서대학생으로서 매일 해야 하는 기본 일과일 뿐이다. 성서대학의 교육과 훈련은 방학에도 계속 된다. 그러나 '방학과제' 라는 말을 좀 부드러운 말로 바꿀 수는 있다.

▲ 총학 : (교육) 진로설계 과목은 폐지하고 졸업이수학점인 140 학점을 완화해 줄 수는 없는가? (일부 타 대학 대외활동자료, 학점 기준, 신앙훈련 필수 요건, 진로설계 유사과목 조사 자료 제시함)

– 답변 : 담당 부서에서 전문설계 과목이 시작된지 4 년이 되어 다시 수업설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졸업이수학점 축소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 강우정 총장의 마지막 발언 : 시종 진지한 질문과 지적에 감사한다. 특히 학교가 일처리 과정에서 총학과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인정하며 다시 한 번 사과 한다. 시정하겠다. 우리대학의 자랑은 학우들과 교수들이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학우들 같은 학생들은 없다고 단언한다. 학우들이 신뢰하는 교수님들도 고맙다. 학교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도 교수였다. 이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지속 되는 한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다.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다. 하나는 수시입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신입생들에게 '학우들이 경험한 성서대학' 을 가감 없이 전해 주었으면 한다. 둘째는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에 총학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참석자 :
학교 – 강우정 총장, 김은호 부총장, 유정선 일립교육부장, 조윤경 전공교육부장, 김중완 행정본부장, 임지영 교학처장, 유미나 교학팀장 등 10 여명.
총학 – 진예은 회장, 황견고 부회장, 김인석 총무, 유지수 회계, 임사라 서기, 유윤상 대외협력부 부장, 이동준 차장 등 20 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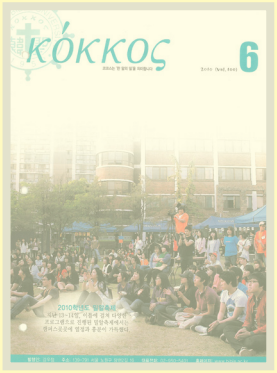
KOKKOS 기사로 돌아보는 성서대 16 년

2002 개교 50 주년 (희년) 부터 2018 자율개선대학까지

2018 년 11 월 코코스 200 호 발행을 맞았다 . 지난 2002 년 2 월 23 일 8 면 형식의 코코스 제 1 호를 시작으로 우리대학의 여러 소식을 실어온 16 년 (2002~) 을 돌아본다 .

KOKKOS 속보
한국성서대,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17일 발표
한국성서대학교의 어제와 오늘

KOKKOS 4
〈153 기도운동〉의 불길 활활
캠퍼스 곳곳, 기도의 함성으로 가득


KOKKOS 6

2002
* 02 _ **kokkos 창간**
* 05 _ **개교 50 주년 (희년) 자축 개교기념예배와** 밀알축제
* 12 _ 희년 자축 성서공동체 만찬 (롯데호텔)

2003
* 03 _ 구다윗 목사 , 명예신학 박사 학위 수여

2004
* 02 _ 첨단 정보화교육체제 및 첨단 강의실 구축
* 02 _ **교육부 수도권특성화지원사업 '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
* 10 _ '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 대형 현수막 (1 호) 모리아관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
* 10 _ 특성화 내용 및 일간지 관련 기사를 실은 코코스지 속보 (8 면) 발행

2005
* 02 _ 성서인 공동체의 성경 1000 독 프로젝트

2006
* 01 _ 천마홀 본격적인 공사 시작

2007
* 02 _ 학교 정문 완공
* 09 _ **밀알관 준공** 감사 예배

2008
* 09 _ **교과부 ' 우수인력양성대학 ' 선정**

2009
* 04 _ 지갑 주워준 김예슬 학우 미담 화제
* 10 _ **간호학과 인가** , 25 명 정원

2010
* 02 _ 성서역사관 , 일립역사관 개관
* 09 _ **대학메이저리그 (Major League) 도전 선언** (2013 년까지 4 년제 대학 중 모든 평가지표에서 상위 20% 내 진입목표)

2011
* 07 _ 밀알훈련센터 수영장 준공 감사예배

2012
* 03 _ **장애학생 교육복지 최우수대학 선정**
* 09 _ 개교 60 주년 지역별 동문 방문과 학교현황 보고회 . 지역별 동문회 결성

2013
* 04 _ 한영수 법인 이사장 발전기금 합계 2 억 후원
* 08 _ **2008~2013 교육역량강화사업 6 년 연속 선정**
* 09 _ 일립관 증축 감사예배
* 12 _ 경성교회 이경순 권사 장학금 1 천 7 백만 원 후원

2014
* 03 _ 간호학과 첫 졸업생 전체 국가고시합격 , 취업 100%
* 04 _ **성서학과 BRC 첫 개강**
* 11 _ 수시 경쟁률 12.65:1 역대 최고
* 11 _ **새 성서대학 체제 출범** , 3 부장 임명 (강규성 일립부장 , 최선희 전공교육 부장 , 최육열 행정본부장)

2015
* 04 _ 낡고 오래된 ' 일체형 책걸상 ' 신형 책걸상으로 교체
* 06 _ 김호식 박사에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
* 08 _ 1 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C 등급 , 입학정원 7% 감축권고
* 09 _ 숲속이레 어린이집 민용기 원장 ' 이례장학 ' 매월 1 백만 원씩 후원

2016
* 01 _ ' 한국성서대학교 후원의 밤 ' 강남 리버사이드호텔
* 06 _ 코코스 Online 판으로 변경 발행
* 12 _ 장학금 마련 'The Messiah' 교내 공연
* 12 _ 총학부재 (2015.12–2016.11) 의 아픔 딛고 32 대 총학 탄생

2017
* 04 _ 2018 학년도 입시전형계획에 입학정원 17 명 감축 공고
* 06 _ **7 호선 중계역 ' 한국성서대 ' 역 병기**
* 06 _ 간호학과 김조자 교수 ' 나이팅게일 기장 ' 수상
* 08 _ 성서대학교회 담임 김은호 목사 이임 , 최정권 목사 취임

2018
* 07 _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 자율개선대학 ' 선정**
밀알관에 ' 하나님 감사합니다 ' 대형 현수막 (2 호) 내걸다

코코스 1 호엔 무슨 기사가 실렸나 ?

' 부총장 박영지 교수 소식 ' 이 Top

KOKKOS

초대 부총장에 박영지 교수

' 초대 부총장에 박영지 교수 '

지난 1 월 15 일 발표된 학교 인사이동에서 박영지 교수 (사진) 가 부총장으로 임명되었다 . 박 교수는 본교를 64 년도에 졸업하고 ... (중략)

* 박영지 교수는 지난 2012 년 7 월 14 일 소천하였다 .

우리대학 코코스 제 1 호의 탑 기사는 인사 소식이었다 . 2 면은 본교에 4 억 3 천 지원 정보통신부 IT 학과 장비지원사업 확정이다 . 신임교직원으로 강규성 , 김승호 , 현우석 교수와 임환석 , 장성희 직원의 프로필을 실었다 . 3 면 , 개교 이래 첫 석사 학위자 배출의 47 회 졸업식이었고 4,5 면은 새해 예결산과 관련된 숫자로 빼곡하였다 .

6 면은 졸업생 취업률 94%, 영보학과 100% 취업의 흐뭇한 기사로 꾸며져 있다 . 신설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이 ' 우수 ' 군에 속했다는 자료를 실었다 . 7 면은 미주지역 동문회 방문으로 강우정 총장 등 일행이 필라델피아 등 4 개 지역에서 학교현황과 동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는 내용이다 . 총동창회 임원진 초청의 신년 인사 겸 간담회 관련기사도 후속 기사로 담았다 .

마지막 페이지는 02 학년도 FT 를 예고하는 내용과 기부금 명단을 하단에 실었다 . 흑백 8 면의 코코스 1 호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다 .

'코코스 200 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학우 , 교수 , 직원 , 동문들의 축하 한마디

성서가족들이 200 호를 기록하는 코코스 지에 응원의 목소리를 전해 주었다 .
성서대학의 발전과 코코스의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는 염원을 담았다 .

안수현 (성서 2) _ 독자를 위한 이벤트

코코스가 학교의 여러 소식을 상세히 알게 해주어 유익하다 .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까지 실려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 . 구독자 위한 이벤트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는데 ? 양방향 교류가 되어서 좋을 것 같다 .

임유림 (영보 3) _ 유익한 정보의 보고 (寶庫)

학교의 여러 소식을 전달한지 벌써 200 번째라니 ! 코코스를 위해 힘써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 앞으로도 희노애락의 여러 소식을 공동체에게 전하는 유익한 정보의 보고로 거듭나길 바란다 .

서융 (사복 3) _ 편집자들의 수고에 박수

발간 200 호를 축하하며 편집자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 . 학생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재미있는 소식이 실리면 풍성해지고 좋을 것 같다 . 성장해주길 바라며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볼 것이다 .

박성준 (컴소 4) _ 한 줄의 역사를 기록

코코스 200 호에 한 줄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기사를 작성하는 분들께 감사하고 좋은 소식 많이 전해 주세요 . 300 호 , 400 호 ... 한국성서대와 함께 해주길 바라며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

조우준 (간호 1) _ 코코스 뭔지도 몰랐었다

내가 모르던 학교소식을 알 수 있고 다른 분야도 흥미를 갖게 해 준다 . 처음에는 코코스가 뭔지도 몰랐었다 . 다른 학우들도 보고 싶은데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다 . 좀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

임환석 팀장 (전산지원팀) _ 나와 입사동기

코코스 1 호와 나의 성서대학 근무가 같아서 입사 동기이다 . 교내는 물론 동문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구심체 역할을 잘 해 주었고 학교 발전의 증인의 역할도 잘 했다 . 코코스가 알찬 정보로 공동체와 계속 이어지길 ...

강규성 교수 (성서학과) _ 밀알 이야기

코코스 발간 20 주년을 맞게 되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 코코스 , 밀알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코코스 안에 앞으로도 진실한 밀알 이야기가 담기기를 기도합니다 .

임지영 교수 (컴소학과) _ 사랑방 역할

성서인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코코스지 , 200 호를 축하합니다 . 앞으로도 우리 학교와 학생 , 동문 , 교직원의 다양한 소식들과 자랑거리를 많이 알려 주세요 .

김현정 (53 회) _ 코코스 200 호 파이팅

코코스지 한 호가 나오기 위해서는 교수님과 직원 등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학교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코코스지 200 호 파이팅입니다 .

유성현 직원 (경비실) _ 복음전도자의 의미

코코스를 12 년째 보고 있는데 벌써 200 호라니 놀랍다 . 학교 정책과 흐름 그리고 복음전도자의 목적까지 알게 해 준 귀한 매체였다 .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귀한 파수꾼 되길 ...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 Kokkos 200호를 발행하며 –

우리대학의 소식지 코코스가 오늘 지령 200 호를 맞았습니다. 2002 년 2 월 제 1 호를 내보낸 이래 16 년 하고도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시기에 200 호를 하나님께 바치며 찬양을 올립니다.

그동안 소식지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창간호의 편집인으로 수고하신 김현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제작에 참여하신 동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전문 인력도 없이 우리끼리 만드는 소식지라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가끔 "시작이 없으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옛 은사 유진오 박사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그래도 계속해야지 라고 마음을 추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 호가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 「Kokkos 기사로 돌아보는 성서대 16 년 」 제하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며 성서대학이라는 나무의 나이테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무의 단면을 잘라 살펴보듯 이 기사에는 16 년의 세월이 동심원 모양의 무늬같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 년이 지날 때마다 나무에 동심원이 하나씩 더 생겨나듯 매년 많은 일들을 쌓아가며 나무 등걸은 굵어져 갔습니다.

소식지라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기사는 자랑할 것, 기쁜 일로 채워지게 마련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이테에는 나무의 나이 외에 더 많은 비밀이 숨겨 있듯이 지난 16 년은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안타깝고 서글픈 아픔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정부 정책으로 입학정원을 7% 를 줄여야 했던 일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작은 대학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학교 재정난 때문에 Kokkos 가 종이신문에서 online 신문으로 변형하게 된 일입니다. 당시 기획실장 김정원 교수 (영유아보육학과) 가 저에게 어렵게 다가 와 "코코스를 격월간 혹은 학기 중에만 발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던 장면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대학의 16 년의 나이테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욱 다행한 것은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건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밀알관 벽면에 써 붙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 현수막이 오늘 우리의 마음인 것이 너무 좋습니다.

직원 컬럼
이강동 편집주간 (기획실)

홍시

감나무에 감이 붉다. 겉껍질을 건들면 바스라질 듯 쇠잔해진 나무가 빚어낸 진홍빛 감은 차라리 경이롭다. 찬 서리로 잎마저 주황빛이 스며질 쯤 나는 40 여 년 늦가을 기억에 닻을 내린다.

내가 5 학년 때, 시골 이웃집으로 서울에서 여중생이 내려왔다. 나보다 2 살 위였고 몸이 아파 요양차 온 것이다. 그 집엔 지붕높이의 둥시 감나무가 우리 담장을 살짝 넘어왔다. 누나는 달달한 홍시를 좋아했다. 홍시를 입에 넣고 꼬물거릴 때 밝았다. "애네 아빠가 홍시를 참 좋아했지. 꼭 빼닮았어 ..." 할아버지는 장대를 치켜들었고 다른 집 홍시까지 살피며 건네줬다. 나도 볕이 잘 드는 곳에 감을 놓고 사나흘 기다리곤 했다. "자, 여기 ..." 햇살을 받은 홍시는 맑았다. "너가 먹어도 되는데 ... " 손이 깨끗했다. 선명한 윤곽에 머릿결도 가지런하였다. 누나는 논에서 사는 벼메뚜기를 무척 신기하게 여겼다. 집이 창덕궁 근처라서 궁궐 이야기가 나를 쫑긋케 해주었다. 막연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내 머릿속을 들락거렸다.

시골 내려온 지 열흘쯤, 마을회관으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누나 아버지의 교통사고였다. 심각하다는 말이 떠돌았다. 그날 밤 늦게 누나와 할아버지가 서둘러 밤기차를 탔다. 집 나설 때 빨간 스웨터가 싸늘해 보였으나 난 입도 떼지 못했다. 일주일 후, 초췌한 모습의 할아버지가 혼자 사립문을 열었다. 엄마는 "넋이 다 빠진 것 같다." 며 돌아와서 탄식을 쏟아냈다.

그해는 넉넉했다. 손길이 바빠지고 볏단이 쌓여갔다. 윤기 오른 주황빛 감들이 곳간을 채웠다. 추수 마친 동네가 말끔해졌으나 할아버지집 감나무만 감이 그대로였다. "생떼 같은 자식 보내고 무슨 정신이 ..." 겨울이 일찍 닥쳐 오자 보다 못한 사람들이 장대를 세웠다. 산비둘기 울음이 낮게 이어졌다. 쇠기러기 편대가 끼룩거리며 먼 서쪽 창공으로 사라져 갔다.

춥고 긴 겨울이었다.

교수 컬럼
김성경 교수 (사회복지학과)

통일선교 비전트립을 다녀와서

지난 여름, 비전트립으로 중국 단둥에서 시작하여 압록강변을 따라 두만강변으로 올라가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다녀왔다. 만주 간도땅, 북한땅, 연해주, 압록강, 두만강, 조선족교회, 고려인, 북한사람 … 이번 여행은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하게 하는, 마음이 무거운 그러나 깊은 곳에서 동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여행이었다.

내가 너무 가볍게 사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한 동족일진대, 언젠가 모든 것이 다 열리는 날 북한주민들이 물어볼 것 같다. 우리가 굶어죽어 가고 탄압받으며 고생할 때에 너는 뭐했냐고? 그 때 "우리는 그런 줄 몰랐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기독교 부흥의 땅이며 신실한 성도들로 가득했던 만주와 북한 땅에 이런 큰 압제를 허락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애굽, 바벨론, 앗수르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종노릇 하던 지극히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이루시려고 하신 것처럼, 중국, 러시아, 일본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고난당하는 약소한 우리 민족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남북대화가 무르익어 가고 한반도 평화모드가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북한 현 정권의 인권탄압과 지하교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언급조차 꺼리는 이 분위기를 우리도 당연시 여기지 않는지 다시 생각해 본다. 그리고 100년 전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 번 이 한반도에 불어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장 같은 민족이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으로 길이길이 남기를 기도한다.

외래교수 컬럼
최지연 (교양영어)

성서대가 특별한 이유 2가지

처음 칼럼 의뢰를 받고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가 고민되었다. 며칠을 생각하다가 외래교수인 나의 입장에서 바라본 성서대의 좋은 점이 떠올랐다. 타 학교에 없는 점을 생각해보기로 했다.

내가 성서대를 좋아하는 이유로 학교가 집에서 가깝고, 우리 아이를 성서대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서대 졸업생이거나 재학생이기도 한 등등. 그러나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꼽고 싶다.

나는 먼저 성서대에 만학도가 있어서 좋다. 개강 첫 시간에 대부분의 만학도들은 긴장된 태도를 보인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학업의 부담감은 상당하다. 나이차 많은 어린 친구들과 수업도 들어야 하고 더군다나 외국어인 영어 과목을 해야 하는 이유이리라.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업에 임한다. 만학도의 모범적 태도는 신입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수업분위기를 교수가 원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꾸어 나간다. 나는 가끔 수업시간에 영어문장의 암기를 시켜본다. 그때마다 살짝 긴장하며 열심히 외우는 만학도를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자극과 함께.

두 번째, 나보다 몸이 약간 불편한 친구가 많다는 것이다. 내가 출강중인 타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친구들은 학기가 진행되면서 처음보다 표정이 밝아진다. 환하게 웃는 모습을 매 수업시간마다 볼 수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하다. 이 기회에 덧붙이고 싶다. 주차 부스에서 일하는 장애우 학우를 잘 모르지만 그 친구가 너무 깍듯이 인사 해줘서 감사하다.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떠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그 학우에게 핑크셔츠가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 컬럼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혹시 나와 의견이 다른 분이 계시다면 양해 부탁드린다. 결론은 그래서 나는 성서대가 참 좋다.

"복음 – 사람을 세우는 가장 숭고한 가치"

대학원 종교개혁예배 , 김은호 부총장

▲ 대학원 종교개혁기념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은호 부총장

대학원 종교개혁기념예배가 29 일 갈멜관 305 호에서 진행되었다 . 김은호 부총장이 ' 복음 '(롬 1:16~17) 의 말씀과 대학원별 학술세미나가 이어졌다 .

김 부총장은 " 우리 내면에 복음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 종교개혁은 학습에 숙련된 자들이 말씀 안에 번민하고 깨어지면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한 개혁이다 . 이 길은 좁고 험난하다 . 사람을 세우는 숭고한 가치라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꼭지점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지성 원우회장은 " 말씀의 반석위에서 복음전도자의 삶을 향해 노력해가는 일꾼 되게 해 달라 " 고 기도하였다 .

일반대학원과 신대원은 송태흔 교수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가 ' 칼뱅과 문화 ' 를 주제로 종교개혁과 문화적 접근성으로 , 사회복지대학원은 황금용 단장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이 ' 서울시 찾아가는 동서비스 사업의 이행와 전망 ' 을 놓고 열린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였다 . 보육대학원 전우경 박사 (아이플러스 부모교육연구소 소장) 가 '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 영유아 부모의 이해와 교사의 역할 ' 로 현장에 초점을 , 간호학은 이일현 소장 (스탯에듀 통계연구소) 이 ' 복합표본조사 분석 ' 의 중요성을 강의하였다 .

컴소 졸업작품전 ,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학우들의 창의적 작품의 경연장

▲ 성서봇 작품의 시연을 살펴보고 있는 학우들 .

' 제 14 회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졸업작품전시회 ' 와 ' 제 13 회 총장배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 가 25 일 밀알관 고승태홀에서 열렸다 .

졸업작품전시회에는 김종모 , 이유빈 학우의 「불록체인을 활용한 문서저장시스템」 작품 등 18 명이 4 년간 익힌 전공학습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보여 주었다 . 컴퓨터 보완 강화로 위변조의 근원 제거가 돋보인 「불록체인을 활용한 문서저장시스템」 이 신기술 적용으로 관심을 끌었다 . 김석래 학우의 'KBU SNS' 는 인맥형성에 필요한 정보 수집의 다양화를 이끌어 냈고 김도형 , 안나영 학우의 지하철 승차 알람 서비스인 「나를 태워줘」 도 선전한 작품이라고 관계자들은 평했다 . 전시회에 참석한 후배들은 팀별 연구가 팀원 개개인의 장점을 공유하고 소통은 물론 완성도까지 높아진다고 말했다 . IT 현장에서도 팀제를 선호하는 추세라며 시연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

' 총장배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 에서는 ' 만두 ' 팀이 만든 ' 성서봇 ' 에게 영예의 대상이 돌아갔다 . 학우들에게 필수인 채플 출석 , 마일리지 잔액 , 학식 조회 등을 간단한 휴대폰 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다 . 최우수에는 'Uner Company' 가 만든 'AITable' 이다 . 개인 맞춤형 스터디 타이머로 일정에 맞춰 알람을 설정시켜 푸시메시지로 받도록 작품화했다 . ' 군만두 ' 팀의 ' 상용구 프로그램 ' 은 단축키를 이용한 양식 문장 입력을 , ' 묵성이닷 ' 이 만든 ' 너의 목소리가 들려 ' 는 고가의 보청기를 대체한 소리 증폭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각각 우수상에 뽑혔다 .

수상작품과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성서봇**	▲구본익 (2) ▲김용호 (2) ▲이경민 (2)	팀명 : 만두
〔최우수상〕	**AITable**	▲김지하 (3) ▲김혜원 (3)	팀명 : Uner Company
〔우수상〕	**상용구 프로그램**	▲이경민 (2)	팀명 : 군만두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임성묵 (1)	팀명 : 묵성이닷

한국개혁신학회「제 45 차 학술심포지엄」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성찰' 갈멜관 305 호

▲ 개혁신학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은호 부총장

한국개혁신학회의「제 45 차 학술심포지엄」이 20 일 갈멜관 305 호에서 진행되었다. 주제는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성찰" 이며 12 명의 회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우리대학 김승호 교수가 '선교적 관점에서 본 동성애' 를 발표했다. 논란이 되는「차별금지법」이 동성결혼으로 이어진다며 교계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민규 교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동성애 그리고 신약의 입장' 주제로 당시 고대 문화와 현대 상황을 비교하며 신약의 원칙과 세심한 지혜의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발표에 앞서 김은호 교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롬 11:21~32) 말씀을 전했다. 김 교수는 문화의 이름으로 횡행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고 "성서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자의적 해석을 단호히 떨치고 겸손을 다해 하나님을 모셔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강우정 총장은 "가치체계가 다 무너지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교회가 이 사회를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야 할 것" 이라며 축사해 주었다.

강인숙 사모 22 주기 추모예배

설교 김중식 교수 , 본향을 향한 삶 실천

▲ 김중식 교수가 추모예배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설립자 강태국 박사의 부인인 故 강인숙 사모의 22 주기 추모예배가 26 일 복음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김중식 교수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히 11:13~16)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신분이다. 이 땅에서 삶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사모해야 한다. 46 년 전 강인숙 사모님이 나를 집으로 불러 밥 한 끼를 대접해 주셨다. 그날은 일평생 중 최고의 감동을 받은 날로 기억된다. 사모님의 사랑과 정성은 본향을 향해가는 거룩한 실천이다. 우리 모두 그의 길을 따라 주어진 소명을 완수해 가자" 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박태수 교수는 기도를 통해 "강인숙 사모님은 설립자가 복음의 뜻을 추구하는 과정의 뒤안길에서 온갖 궂은 일을 묵묵히 감내해 오셨다. 그 길은 고난과 희생의 삶이었고 형극의 길이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가정과 학교를 지키고 품으며 오직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위대한 어머니셨다" 고 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어머니에 대해 존경과 사랑의 뜻을 되새기게 한 자리였다고 말하고 순서를 맡은 분들과 참석한 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경성교회 장학금 3 백만 원 후원

20 년간 1 억 후원의 귀한 동행자

▲ 경성교회 박종걸 (왼쪽) 목사가 김은호 부총장에게 장학증서를 전하고 있다.

경성교회 (박종걸 목사) 가 28 일 성서대학주일예배에서 장학금 3 백만 원을 후원했다. 박종걸 목사는 "성서대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 혼신을 기울이는 소중한 동반자이다.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값있게 사용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은호 부총장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롬 1:16~17) 으로 말씀을 전했다. "우리대학은 지난 66 년간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오직 한길을 걸어왔다. 이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었고 충성의 걸음이었다. 세상 시선에 편승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고수하고 지켜가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함께 달려가자" 고 하였다.

경성교회는 20 여 년 전부터 우리 학우들을 위해 장학금 등 총 1 억 여원을 후원해주며 복음전도자 양육의 선한 불빛을 곁에서 지펴준 귀한 동행자이다.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그림은 운명적 만남에서 옵니다

추석연휴에 샤갈전을 다녀왔습니다. 제 믿음은 그림이 운명적 만남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만남이 없는 그림은 이민 간 낯선 땅, 다운타운을 지나는 행인들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은 자신의 몸이 실린 지하철 건너편, 기계음 내며 지나는 다른 편 열차 차창에 비쳐진 여인의 잔상처럼 그렇게 나를 찾아 왔습니다. 운명이 날 찾아온 날, 얼굴에 비친 햇살처럼 내 앞의 사물을 못 보게 했습니다. 물에 비쳐지는 햇살처럼 운명은 내 얼굴을 힙합 가수들의 무대가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른거리지만 실체가 없고 들리는 소리에 어깨는 들썩이는데 정작 그 가사를 외우지 못하는 것처럼 운명이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림이 나와 운명을 하나 되게 하는 건지, 운명이 나와 그림을 하나 되게 하는지 그 정의가 불분명한 것도 운명의 특징일겁니다. 있지만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있는 건 운명이 가진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은 설명서나 오디오로 들려지는 해석이 진실의 일부이거나 왜곡된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보다 들려지는 해석보다 중요한건 느낌이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스스로 혈관 한 쪽을 구멍내 느끼지 못하는 피를 내보내고 몸 안에서 다시 느낄 수 있는 피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목마름으로 채울 겁니다. 목마름은 그림과 운명적 만남을 갖게 하는 몽학선생이 됩니다. 샤갈전은 제 안의 목마름의 정도가 어디에 왔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샤갈이 그린 '다윗과 모세'는 실제가 뭔지를 모르는 갈망의 붓질이었고, '고향 비테프스크'의 '불 꺼진 교회당'은 불을 켜고 싶은 그의 열망의 손짓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샤갈의 작품은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고 많지 않았습니다. 유화보다 판화가 많았기에 한 판에서 만들어낸 자식들의 희미한 모습 때문에 더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떠나기 전에 누구와 마지막 시간을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가시면 '사랑하는 연인들과 수탉, 예레미야의 눈물, 기도, 비테프스크 위에서'라는 작품을 눈여겨보시길 권합니다. 전시실을 나와 그냥 집으로 가지 말고 전시장 마당으로 나가서 마당을 지나는 바람과,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햇살아래 자신을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강아지를 안고 가는 아이의 모습, 한 몸이 되기 위한 연인들의 몸짓, 벤치에 앉은 채 인생의 무게를 지고 있는 노인의 얼굴, 이 모든 게 또 다른 그림이 돼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미술관을 건너갈 때 어린시절 양말 벗고 시내를 건너는 느낌과 같았습니다. 그림 앞에 서 있다 돌아오는 길은 많이 행복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전 8:15)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52

햇살에게

정호승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는 생명이었을 먼지가 날린다. 지금은 물기 빠진 가벼움으로 허공을 떠다니는 먼지.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선명해지는 별처럼, 햇살을 통해서야 비로소 먼지는 선명해진다. 반짝이며 소용돌이치는 수많은 알갱이가 춤을 춘다. 빛이 된다. 바람이 된다. 먼지는 나이고 나는 먼지의 재료다. 먼지를 볼 수 있는 눈, 먼지에 불과한 나,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는 햇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돌아봄의 시간이다.

대학어린이집

▲ 정병헌 어린이의 어머니가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말하고 있다.

간호사 직업은?

믿음반은 17 일 열린어린이집 시간에 '부모님의 직업 소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간호사로 근무 중인 정병헌 어린이 어머니가 간호사 직업에 대한 업무와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해 들려주었다.

간호사가 되려면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공부 열심히하며 부모님과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기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또한 단체생활에서 건강에 필수적인 손 씻기 방법을 강조했다. 아이들도 직접 경험하고 중요성을 인식케 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강의를 진행한 학부모는 "어린이들이 간호사 직업에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믿음반 장지영 교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김장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복지관 앞마당에서 열리고 있다.

월계희망마을 바자회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2 일 주민들과 월계희망마을 바자회를 진행하였다. 바자회는 월계지역 주민 6 개팀 (건강한마을, 해오름봉사단, 어울채, 주공 1 단지 동대표회, 나누면행복, 천연수세미동아리) 과 우리 복지관이 월계희망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다. 행사자체를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 가는 의미 있는 바자회다.

이번 바자회는 김장기금 마련을 위해 우리 복지관 주차장 앞마당에서 열렸다. 건강한 비누, 천연수세미, 국수, 부침개, 추억의 달고나 등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등이 마련되었는데 바자회 장터가 지역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번 바자회 운용으로 당일 모금된 340 여만 원 전액은 11 월 말 우리지역에 김장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사회조직팀 오윤아 과장]**

꿈빛어린이집

▲ 교사들이 장애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후 함께 하였다.

보고 배우는 날

지난 18 일 꿈빛 어린이집은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 5 차 보배데이 (보고 배우는 날)' 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지원' 주제로 교사에게 장애통합프로그램을 보고 배우며 함께 공유하도록 기획되었다.

교육은 사회적 관심인 장애통합 프로그램운영의 실제를 다양한 교육자료와 사례 등으로 접근 하였다. 특별히 발달장애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고려할 사안과 교육환경을 놓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고 50 여명의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이 참여했다.

참관교사들은 장애통합 현장의 어려움과 환경지원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며 더 나은 장애통합보육을 위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백합반 여미희 교사]**

성서대학교회

▲ 하나님이 올 한해 거두게 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렸다.

추수감사주일

성서대학교회는 10 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을 '가족이 함께 감사와 은혜를 드리는 예배' 로 진행하였다. 전 세대가 드리는 예배라서 설교 방법과 내용을 일부 변화시켰다.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교역자마다 파트를 나누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파트별로 무대에서 연극으로 표현토록 하였다. 그리고 최정권 담임목사가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살 5:18) 제목으로 마무리 하였는데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모두 감사예물 (과일, 채소, 쌀 등) 을 드렸고 이를 지역사회 (한국성서대학교 일립생활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12 가정 등) 와 나누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추수감사의 은혜도 실천하였다. **[서 욱 목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

▲ 내년도 입소 예정인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집 교육설명회

지난 19 일 내년도 상계백병원 어린이집 입소를 준비하는 상계백병원 직원 부모 대상으로 교육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현황과 보육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등 자녀 교육과 관련된 우수교육 과정 소개와 질문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교육정보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 등 사안별 질문도 함께 공유하며 아이 중심의 사랑과 감사를 지도해가는 보육 현장을 느낄 수 있었다. 어린이집의 생활과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따뜻한 분위기는 물론 교사들의 교육철학도 분명해보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맑은반 이수현 교사]**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학부모들이 육아프리데이에 참여해 자유로운 휴식을 만끽중이다.

육아프리데이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23 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서 육아프리데이를 진행하였다. 육아프리데이는 육아로 지친 학부모에게 휴식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향상시켜주고 정서적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간 화목지수를 더해주는 의미와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생태습지공원을 산책하고 자연 속에 파묻혀 사진도 찍었다. 체험 공방에서는 자신만의 감각이 담긴 도마를 만들며 힐링을 가졌다. 탁 트인 환경 속에서 점심을 나누며 소소한 일상 공유와 사진콘테스트로 여유를 즐겼다.

돌아가는 여정이 못내 아쉬웠지만 내년 육아프리데이를 기약하며 10 월의 어느 멋진 날을 가슴에 깊이 담았다. **[특수교사 권하림]**

상계5동어린이집

▲ 한마음 체육대회 팀별 경기에서 영유아들이 대형볼을 이동시키고 있다.

한마음 체육대회

지난 10 일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주최의 국공립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에 만 4~5 세 유아와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은 '모두가 한마음으로'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다. 1 부는 영유아들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게임 프로그램을 즐겼다. 2 부에는 교사와 학부모, 영유아가 대표로 임하는 팀별 성격의 활동이었는데 승부욕을 자극시켜 함성으로 열기가 달아 올랐다.

마지막은 원별 레크레이션 장기자랑으로 진행돼 학부모와 영유아가 무대에 오르는 추억도 맞보았다. 이 행사로 유아들은 다른 어린이집 친구와 만나는 경험을 하였고 부모들도 이웃 지역 학부모와 교육 정보 등을 나누며 유익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다.

[온누리반 장나혜 교사]

늘사랑어린이집

▲ 학부모와 유아들이 파주시에 소재한 수우원에서 파란 가을을 즐겼다.

가을 나들이

지난 11 일 (조) 부모와 함께 파주시의 수우원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영유아 36 명, 학부모 44 명이 참여했으며 파란 가을 하늘 아래에서 간식 만들기와 신체활동 등으로 사랑과 감사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야외 프로그램이었고 학부모와 유아들은 블루베리를 설탕과 주물러 달콤한 잼을 만들었다. 알록달록 형상의 맛있는 쿠키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각자가 만든 쿠키를 비교하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밖에 함께 참여하는 영차 영차 무 뽑기와 다양한 신체활동이 즐거움을 더해줬다. 학부모들은 자녀들과 추억을 만드는 귀한 하루였다고 말하였다.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해지는 늘사랑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늘사랑반 한보연 교사]**

충무어린이집

▲ 장충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한마음가족대축제 행사를 즐기고 있는 참석자들

한마음가족대축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3 일 장충초등학교에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와 학부모 대상으로 한마음가족대축제를 진행되었다.

연령별 프로그램과 신체활동을 마련해 영유아가 즐겁게 뛰놀며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와 교사들도 줄다리기, 훌라후프 등 여러 종목에서 자신의 기량과 열정을 보여 주었다. 한마음가족축제는 다양한 활동과 힘찬 응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확인해가는 행사였다. 학부모들은 "아이들과 놀며 스킨쉽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축제로 시간을 보내 행복했다." 며 소감을 전해왔다.

가족이 참여한 이번 행사가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 모두가 동심으로 하나될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변윤영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8년 9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17 Fax. 070.4275.0161
- **기부금종류**
  장학기부금 : 학업곤란 및 생계곤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으로 지원되는 생활 장학 기금
  운영기부금 : 학교 발전을 위해 시급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쓰여지는 기금
  역명기부금 : 중계역(한국성서대역) 3년간(최장 6년) 계약되어 있는 금액 납부를 위한 기금
  건축기부금 : 신축 및 학생들이 편하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면학 환경을 조성하는 기금
  발전기부금 : 각 학과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기금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823만원(운영)	강우정.강진(총장)	100만원(운영)
오은성	1,000달러(운영)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교직원 및 가족		단체 및 기관	
1구좌	성순애 이현지	10구좌	강정원	2구좌	문양교회
2구좌	전택복			5구좌	장자교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시내 민이삭 박진기 이아람 무 명

1만원
강명희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영규 강영주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강정애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성호 고재민 고정균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슬기 권예은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경수 김경수 김경혜 김나래 김다솔 김도훈 김동현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미숙 김민겸 김민정 김민정 김민호 김믿음 김병렬 김보희 김선근 김선식 김선태 김성균 김세현 김소영 김순화 김승훈 김유미 김유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희 김응환 김일준 김재현 김정례 김지선 김진하 김차욱 김춘덕 김태용 김필녀 김하은 김현정 김현진 김혜선 김혜영 김화태 김효래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 철 노한나 류수진 류요한 류 정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영주 문홍철 민정은 박경옥 박명우 박문홍 박상수 박성준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박영자 박윤복 박은지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반해빈 반해성 배민정 배은휘 배창경 배혜인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은진 백향목 변지윤 서미희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초롱 서 현 서희영 성순애 성은숙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손혜진 손화진 송명훈 송민규 송향숙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혜영 신호영 신화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병휘 오세천 오은희 오인록 오찬미 왕지희 우승연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양숙 유영진 유정례 유주홍 유지영 유지혜 윤솔이 윤예서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경선 이광석 이근중 이누리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화 이병주 이병현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신재 이아름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윤성 이윤주 이은실 이은실 이은영 이은지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춘석 이학준 이현섭 이현지 이혜윤 이화연 이희윤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임창열 장두성 장세진 장순호 장윤국 장익봉 장희남 전미영 전병준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예지 전한나 정금숙 정다운 정선도 정성헌 정성희 정연오 정영교 정영용 정옥순 정은영 정인철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경애 조믿음

기부자 명단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오순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조인순 조장현 조태환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지영환 진병원
차현정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민영 최서희 최선경 최수연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슬
최종운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탁명화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아름 한영신 한원창
한정은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황선명 설에스더
신에스더

2만원
고난홍 곽연희 구본철 구연민
국소영 권오경 김경희 김기옥
김동길 김명희 김미나 김미숙
김미향 김샛별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승용 김승희 김연주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지은 김지혜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경수
박대우 박재송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석배
송영희 송인성 송정화 신정섭
신정화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순희 윤광길 이경희 이미숙
이보아 이상복 이선영 이선재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이환기 임은희 장민호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주영
조성진 진태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황승호
황보혜영

3만원
고하은 공복순 권서영 권오규
권정완 김가희 김다예 김동원
김민기 김민지 김보라 김세련
김아란 김지애 나예원 남세영
남지원 문순일 문지수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설보경 송성은 신은숙
양광석 양연선 양혜경 양혜영
유예진 이경석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예은 이예지
이은혜 이재국 이주연 이혜민
임소담 임유미 장영훈 전병민
전영이 전지혜 정선희 정슬기
정윤주 정재연 조은경 조은아
주혜원 진성지 최광희 최소린
최은희 태지선 한보미 홍석화
홍예지 황미란 황영숙 황예린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이윤정
정성종

5만원
강동란 경민정 김세영 김종남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지혜
배성준 송복순 송현미 양원석
윤보은 이계훈 이길순 이부호
이지은 임연식 전은진 조유진
천유림 하승훈 허성희 허정원
홍현숙

6만원
정동주

10만원
강경옥 김장교 김종우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장명헌
최대만

11만원
유선미

50만원
신호정

100만원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애솔 강정희 권순길 김명선
김석정 김성자 김윤옥 김은이
문성남 박기영 박대종 박미영
박민희 박재숙 방지연 백해송
서이현 송기운 신연정 신영옥
안소연 염인형 오미선 윤운섭
윤효심 이금란 이동기 이용철
이원혁 이혜진 임동화 정창금
최상모 홍경희

2만원
공진희 김복녀 김현숙 박혜숙
서성식 안혜경 엄미자 오옥경
이영림 최혜진 허 윤 홍은선

3만원
김성순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재완 배정숙 서재형 이종권
조대의 채형찬

5만원
김형태 이지은 이한빈 허용철

10만원
박연자 이상학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고성산 고아라 구동식
구만길 권관희 김미영 김병수
김봉재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유진 김은실
김춘하 김형중 김 희 류은미
문지예 민경은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안수자
양승원 윤명섭 이경희 이기훈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이호섭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전영호 정은상 조아라
조영채 조형섭 최미영 최민주
최은비 최혁인 하희수 허윤민
요시다고조

2만원
고진주 권경애 김남준 김동준
김세원 김인화 김장호 박성범
박준기 박태용 손정수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상일 임현필
장길정 장지순 정영은 진달래
최지연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김은영 박민수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유다운 유수연 이소연
임경미 정순애 추연진
한요게벳

4만원
김덕원

5만원
권순범 김덕현 김성호 김현동
박현희 신금주 신지수 안미란
유미나 이은광 장정순 전영천
최사랑

6만원
양희정 이성아 임환석

7만원
이광삼

9만원
권경만 장성희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도경
김미정 김승호 김웅기 김정원
김정원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안현미 오윤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소정 장인순
정순례 정휘진 조현진 조혜경
진경선 최육열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11만원
김중완 이복남 최지은

12만원
이강동

13만원
강규성 김정숙 한진호

15만원
김량헌 김은호 김희수

20만원
김성경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안정선 임지영 정해덕 조윤경
최영태

25만원
최선희

80만원
Crawford Sue Hong

100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권은지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김태연 문유나 서애진 오윤아
임재택 차도영 최미정 최선영
허성보

2만원
김은비 전안나 홍옥주

3만원
권정아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은솔 김주은 김현애 김혜진
박미애 박선경 박천순 백예나
변송이 변윤영 서혜란 송애솔
양미현 위소진 유정현 이다솜
이선정 이효빈 임미숙 임보나
장나혜 장수진 장지영 정난경
정미옥 정혜란 조은채 최은혜
최하나 탁지혜 한민희

4만원
박미선

5만원
강진아 박연희 서영숙 여미희
이지연 전은재

10만원
이인경 정나나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오동준

20만원
김승옥

25만원
신영자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조예림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김영란 배 윤.김현진
한미희

3만원
이은지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1만원
이광열 이반석 장옥경

2만원
장선규

3만원
이훈호 장석원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진재호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이재순 채용문

2만원
오활란

성서대학교회

1만원
강경혜 김택근 박영한 안숙진
오경모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정정원 최진두
홍동숙

2만원
김귀조 김동준 김배열 김성철
김애숙 김영희 김인영 김인자
김일선 김지우 김지윤 김태연
남윤주 무 명 박용숙 박천순
박태수 변경선 성윤선 손진희
송형기 신양금 양순정 오윤아
용정자 이관영 이대우 이영희
이유화 이임자 이정숙 이정임
이종옥 이주현 장근문 장홍림
전하준 전해성 정나영 조건희
조영희 조용수 조준희 조현진
지주연 최명순 최미숙 하명란
한성실 황서린

4만원
강규성 권정숙 김미숙 김민자
김을열 김정숙 박명자 박선하
신인옥 안영숙 양천식 이승림
이윤봉 장병호 정명수 조성민
최순남 홍기순

5만원
김동선 김웅기 이명순 장인순

6만원
강유진 김영헌 김원태 김원태
양태환 이숙영 이은실 최명순
한진호

7만원
신선미

8만원
권태완

10만원
길용희 김현광 박세건 유형창
조혜경

12만원
전명진

70만원
장석순

823만원
성서대학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미영 김상오 김일섭
정유광 홍성호

2만원
반요셉 이승종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2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우용식
이승학 최경자 최영란 최영숙

2만원
김옥자 김재혁 신영옥 오근수
이수병 이준구.안춘자

3만원
김덕규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5만원
김종구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권사회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0만원
김윤규.신인자 무 명 이혜선
현희철

12만원
황인돈.김순자

기부자 명단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숙자 유재란 차형미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김광석 정순이
2만원 안종민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원 구 유순남 진효숙 홍성일
2만원 김양례
3만원 문경녀

일 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영욱 권창석 김균태 김기수 김대성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배숙 김범설 김범준 김석균 김승애 김양권 김영주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김천수 김효정 류계현 류찬성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소아름 송수용 오경희 오미라 오현숙 원영훈 유제범 유해연 유화실 윤주원 윤주하 이관헌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이호정 장명웅 장지화 정지수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조준성 조준우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원실 최은실 최인숙 최점숙 하경국 한민희 한상은 허창금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김윤숙 김종환 서병준 이일신 장병길 정주아 정형채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김에스더
3만원 김미수 장문석
4만원 김하람
4만3천원 박은영
5만원 강한성 석지현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30만원 박순정
60만원 최병규
1000달러 오은성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김포예수사랑교회/꿈꾸는교회/동두천성실교회/맘키즈푸드/이음기업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리트코리아/금곡광염교회/동신자원/문양교회/성복중앙교회/열방교회/예수꿈사랑교회/월계성서교회
3만원 강남임마누엘교회/새샘교회/우리교회/태광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4만원 주님의교회
4만4천원 도서관
5만원 다드림교회/삼일교회/수색감리교회/천성교회/충은교회/하늘누림교회/행전교회/향기나무
10만원 (주)아이앤유니/(주)이레E&C 이레디자인/가성교회/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두암산업(주)/상록교회/상일교회/오감발달연구소
14만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구리성광교회/도봉성산교회
30만원 노아인터내셔날/만나교회/염창중앙교회/한민제일교회

소계 (2018.09.21~2018.10.20)
43,716,389
누계 (2018.03.01~2018.10.20)
550,640,731

대외협력실 **02-950-5517**